

‘씻지 못할 죄’ 남기고 한 줌 재로

이호성씨 어제 광주서 火葬 ‘참극’ 주범... 빈소 모습 스산 어머니는 며칠째 참회 기도



12일 오후 광주 모 화장장에서 화장된 이호성씨의 유골함을 한 지인이 건네받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그라운드를 누비던 프로야구 스타에서 일가족 네명을 살해한 야수(野獸)로 전락한 이호성(41)씨가 풀리지 않는 의혹만을 남긴 채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지난 11일 밤 이씨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시 북구 M장례식장에는 선배와 후배, 일부 야구계 인사들이 드문드문 찾을 뿐 깊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들도 이씨의 충격적인 범행이 믿기지 않은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자리만 지켰다. 싸늘한 침묵만이 빈소를 감쌌다.

이씨의 빈소는 극비리에 마련됐다. 당초 경찰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은 이씨 가족들은 서울 벽제화장터에서 화장한다고 말한 뒤 고향인 광주의 장례식장에 11일 은밀히 빈소를 차렸다.

이날 빈소를 찾은 이는 이씨와 절친했던 동료와 선후배 등 불과 40여명. 그러나 눈에 필만한 유명 선수는 없었다. 가족 중에는 이씨의 형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씨 어머니는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기도원에서 며칠째 참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야구협회 한 관계자는 “좋지도 않은 일인데...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야구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그의 옛말이 그저 생각날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이씨의 형 친구인 배우 박모씨는 “돌도 없는 친구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호상(好喪)이든 악상(惡喪)이든 와 봐야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 왔다”고 말했다.

다른 빈소에 조문을 왔던 한 시민은 “이씨가 한때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피해자 가족과 자신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만을 안기고 떠났다고 생각하니 진저리가 처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어떻게 자신을 새아빠로 믿고 따르던 어린 딸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느냐”며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이씨를 원망했다.

이씨의 시신은 12일 오후 광주 시내 모 화장장에서 화장됐다. 한줌의 재로 변한 이씨의 유골을 인수하는 순간에도 그의 영정 사진은 흰수건으로 덮혀 있었다. 그의 잔인한 범행에 대한 세상의 분노가 이승의 마지막 풍경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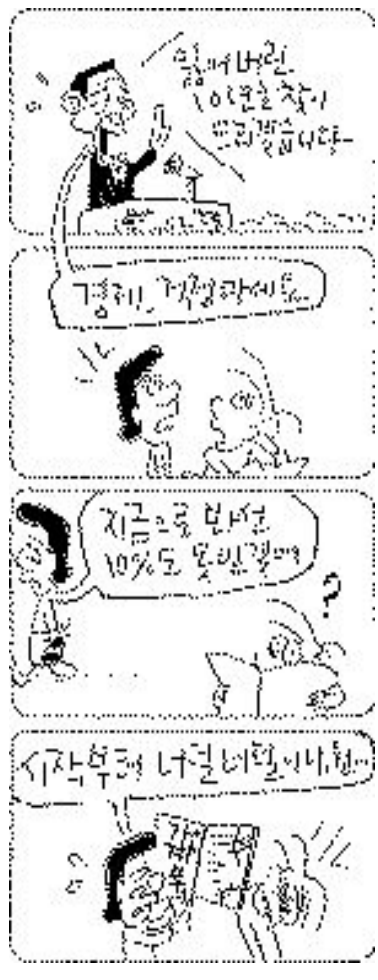


초여름 같은 날...백목련도 '花들짝'

12일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울들어 가장 높은 20.5도까지 올라간 가운데 전남대 사범대 앞 화단의 백목련이 활짝 피어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며 밤부터 차차 흐려져 5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원침 (7456) 김중두



다 좋은 건국·산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연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용돈 안준다” 동거녀 납치·감금

상나팔

○평소 용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뒤 납치·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형.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류모(47·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대형 할인유통업체인 S마트 앞에서 동거녀 유모(여·38)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4시간20분 동안 자신의 화물차에 감금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류씨는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류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6년 동안 사귀어온 유씨가 용돈 얘기만 하면 싫은 소리를 하고 짜증을 내 갑자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뒤늦은 후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누구나 한두가지 비밀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여인”

신정아씨 최후변론서 눈물 변양군씨와 함께 4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12일 학력위조 과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기업체들에 외압을 행사해 신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해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나의 잘못이긴 하지만 (나 또한) 억울한 피해자이다”며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을

광주 **젠틀맨비뇨기과** 의원
www.urocare.co.kr 061-233-5119
발기 불능수술 안동복·윤주사·오영민
상당 (062) 233-5119

■이호성씨 이중삼중 거짓생활 김씨와 부부 행세 하며 다른 여성 만나 휴대전화 여러개로 나눠 쓰는 등 철저

란스러운 상태에서도 A씨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도록 부탁한 점에 주목해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이 결과 이씨의 이중 삼중의 거짓생활이 드러나게 됐다.

이씨는 1년여 전부터 피해자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마치 김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해왔다. 이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참치회집

에도 자주 들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김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함께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씨는 또 다른 여성 A씨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늦여름부터 이씨를 알게 돼 만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가 김씨 모녀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은 “이씨가 종종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A씨를 속인 뒤 김씨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삼중 생활을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여러 개로 나눠 쓰는 등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주말부터는 A씨를 불러내 투신 직전까지 이틀여 간 함께 지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9일 밤 삼수대고 부근에서 A씨와 헤어지면서 ‘사랑한다. 잘 살아라’ 등의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콩나물 승합차’ 사고 4명 사망 15명 부상...정원 초과·차량 개조로 인명 피해 커

70·완도군) 등 15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정원이 15명인데도 운전자를 포함해 19명이 빼곡히 타고 있었다. 특히

많은 인원을 태우기 위해 운전석 뒷 좌석까지 떼어내 일부는 바닥에 앉았다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완도와 해남에서 살고 있는 사상자

들은 지난 10일부터 일당 3만원을 받고 진도군에서 봄 배추 이식 작업을 벌여왔으며, 사고 승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승합차를 추월하려다 앞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승합차와 부딪혔다”는 슈마 운전자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황산·장가제 名山紀行

2008년 4월 25일 ~ 5월 10일 (17일간)

황산·장가제·장가제	₩99,000 (4인 기준)
황산·장가제·장가제·황산	₩149,000 (4인 기준)
황산·장가제·장가제·황산·장가제	₩199,000 (4인 기준)

광주/전남, 북여행사 판매 문의전화: 082-226-6070